

유

통



(II)

신 정 일

〈유일농원 영업부장〉
〈본지편집위원〉

● 알리의 닭고기

이미 지난 이야기이고 실현가능성이 희박했던 것이지만 무하마드 알리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그를 위한 만찬회 석상에서 통닭을 뜯고 있는 알리의 사진이 텔레비전 화면에 비추이고 다음과 같은 짧막한 단 '네마디의 대화'가 TV 아나운서와 알리사이에 오고 갔다면 어땠을까?

“닭고기를 좋아하십니까?”

“예, 무척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십니까?”

“닭고기는 바로 스테미너이지요. 내 철권의 비결이 바로 닭고기에 있습니다.”

現代는 매스컴의 時代이다. 위와 같은 극적인 순간이 있었다면 우리 肉用業界에 미친 영향은 불을 보듯이 될하다. 그러나 이러한 活動은 우리들 양계인 外에 어느 누구도 해주지 아니하며 오직 우리들 스스로가 개척해 나가야 한다. 우리는 우리들의 단체인 대한양계협회를 가지고 있다. 생산자는 협회를 활용하여 이러한 活動을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러나 비용이 문제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들의 事業을 위하여 양계기금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절실히 느끼는 것이다. 기금창조에 대한 活動은 협회 단독으로 수행하기가 매우 힘들다. 협회를 중심점으로 하여 업계 전체가 뭉치고 머리를 맞대어 연구 추진해야 할 것이다.

● 달콤한 꿀맛의 바밤바 : 닭똥냄새의 계란 = 1 : 3

시장에 가서 백원짜리 지폐 한장으로 계란 3개를 사는데 우리들의 주부는 매우 인색하지만 그러나 더운 여름날 순간적인 목의 갈증을 적시기 위하여 사먹는 백원 한장의 바밤바에 있어서는 매우 후하다. 바밤바 한개가 우리에게 주는 효용가치로서는 단지 순간적인 갈증해소와 그야말로 찰나적인 달콤한 꿀맛뿐이다. 닭똥냄새가 나기 때문에 싫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들의 체력을 위한 영양가치나 혹은 방문한 손님접대를 위한 음식물, 밥상의 반찬등 계란의 이용가치는 바밤바의 몇 수십배가 되고 있지만 단지 고급産業과 1차 산업이라는 차이와 꿀맛과 계분냄새(?)라는 이유때문에 겨우로 1 : 3이 된 가격형성이라면 너무 억울한 것이 사실이다. 우리는 75년의 여름만 하더라도 각종 빙과류中的의 대부분이 30~50원代로 가격이 형성되었지만 1년이 지난 지금에 있어서는 똑같은 상품이 50~100원으로 시판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他 産業의 모든 제품은 100%의 가격상승현상에 있다. 허지만 우리 양계산물만이 이러한 현상에서 뒤편어지고 있다. 「바밤바 : 계란 = 1 : 1」은 못 된다 하더라도 적어도 1 : 2, 즉 계란 1개당 시판가격이 50원은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들의 사회

핀치라인

활동에 참여하는 활동여하에 따라 충분히 이러한 가격으로 우리의 생산물을 판매할 수가 있다. 수동적인 생산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同時에 능동적인 판매활동과 소비증대, 시장 확장활동에 적극 참여해야 할 것이다.

● 界富論

하나의 국가가 부강하게 되려면 수입보다 수출이 더욱 많아서 다른 나라로부터 들어오는 달러가 많아야 하고, 한가정이 부유해질려면 가족들이 쓰는 돈보다 벌어들이는 돈이 더욱 많아야 하듯이 우리들의 양계업계가 부유해질려면 他 產業界로부터 우리업계로 더욱 많은 수입이 들어와야만 한다. 양계인이 케미슈즈를 사고 약품판매원이 콜라를 사 마시는 돈보다 무역회사원이 더 많은 닭고기를 사먹고 국제화학 신발직공이 더욱 많은 계란을 사 먹어야 한다. 他 產業에서 우리 축산인에게 그들의 상품을 구입케하기 위하여 각종 광고를 하듯이 우리들도 우리의 양계산물에 대한 충분한 영양적인 인식과 소비방법등을 그들에게 주입시켜야 한다. 그들이 그들의 상품에 대한 시판가격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 듯이 우리들은 닭고기를 kg當 800원 이상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우리는 양계산물의 소비가 위축될 수 있는 어떠한 장애물도 제거해야하며 소비가 더욱 많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하고 실천해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는 양계생산물의 가격이 하락할 때 오직 생산조절이라는 단 한가지 방법으로 우리 자신의 몸뚱아리를 두들기는 자학(自虐)적이고 소극적인 태도만 취해왔지 소비를 더욱 확대시킴으로서 가격을 유지하는 능동적인 방법은 거의 실현해 본적이 없었다. 무역협회의 급고보다 양계협회의 급고가 더욱 두둑해질 때 축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 모두의 호주머니 사정이 좋아진다는 界富論을 우리는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다.

● 몬트리올 올림픽의 교훈, 체질 개조론

세계 인종중 체력의 경쟁에서 가장 뒤 떨어지는 인종이 황색인종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이번의 몬트리올 올림픽경기에서 더욱 그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천부의 자질을 타고난 흑인중에 지킬줄 모르는 백색인종, 그러나 누렇게 퇴색된 황인종은 몇 번 뛰지않아 벌써 지쳐 헉헉거린다고 했다. 동양인 특히 한국인들은 체력으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력으로 싸움에 임하기 때문에 지구력이 없으며 승패의 결과에 대해서도 항상 불안한 것이다. 소위 "개발에 탄난다"는 격으로 컨디션이나 기분이 좋을 때면 무서운 투지로써 좋은 결과를 나타내지만 조금 기분이 언짢으면 형편없이 떨어져 버리고 만다. 천부의 체력을 지닌 흑인이라고 할 때, 결코 비아프라에서 굶주린 흑인이 이 범주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육식으로서 체력판리가 잘된 흑인 일 때, 그들은 천부의 자질을 바탕으로 무서운 체력을 보유하게 되는 것이다. 백인은 물론 육식주의자들이다. 다만 황색인만이 쌀과 일부의 반찬으로 그들의 체력을 평소에 키워온 것이다. 근본적인 체력이 모자랄 때 조그마한 잔재주나 한 때의 육하는 정신력으로는 승리를 기대할 수가 없다. 올림픽의 체력경쟁에서 우리가 이길려면 닭고기와 계란을 먹고 우리의 체질을 개량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결론이 나온 것이다. 양계인은 양계산업이 축산업에서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양계인 스스로가 먼저 인식하고 증거를 가져야 할 것이다

● 國家百年大計—국민체력증진 및 두뇌개발

先進國에서 경제개발정책을 수립할 때 빼놓지 않고 매우 중요시 하는 것이 식량부문정책과 인적자원개발정책이다. 그들은 몇개의 단

편치라인

전을 개발하여 자연자원을 확보하는 것보다 단 1%의 국민두뇌개발이나 체력증진이 더욱 국가를 부유케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영국이나 이스라엘이 매우 궁색한 자연자원으로서 그렇게 강한 국가로 성장한 원인이도 여기에서 찾아볼 수 있다. 사람의 두뇌개발이나 체력증진이 섭취하는 영양에 따라 좌우된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다. 사람의 뇌세포발달의 가장 중요한 시기는 생후 2개월에서 1년 6개월사이라고 한다. 아들과 딸을 훌륭히 키울려면 이 시기에 충분한 영양을 섭취시켜야 한다.

사료곡물을 도입하는데 지불되는 달러가 가까워서 양계산업을 위축케 한다든가 양계생산물에의 홍보활동에 의한 소비확장을 꾀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무를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우둔을 범할 것이다.

● 見指忘月

양계업계에서 현재 가장 문제시 되고 있는 것은 육계유통문제이다. 축산물가공 처리법에 의하여 실시된 생계단속으로부터 시작된 육계유통과동은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아니한 채 “한번 실시해 보고 안되면……”하는 당국의 비공식 방침아래 지난 8월 초순의 생산업자와 도계장축의 대결로서 일단 정지된 상태에 있다. 앞의 界富論에서 거론되었지만 우리는 우리의 생산물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좀 더 정당한 가격으로 소비시키므로써 우리 體内に 더 좀 많은 영양분을 섭취하여 살찌게 하여야 한다. 이번의 생계단속은 명분과 유통질서가 어떠한간에 매우 많은 소비위축현상을 초래케 했다는 사실은 명약관화하다. 우리의 체내로 영양분이 들어오는 입구인 목줄기는 바로 생산업자이며 입(口)으로 부지런히 영양을 날라다 주는 손발의 부분은 바로 중간상인과 생계상인인 것이다. 우리들에게 밥을 운반해 주는 손발을 짜름으로써서 입을 틀어 막아버린

다면 우리의 몸은 어떻게 될 것인가? 20여개소의 대규모 차량증상과 180여개소의 오토바이증상들이 운반하여 서울시內 800여개소의 생계상인이 판매하므로써 이루어지던 육계유통을 하루아침에 8개 도계장과 1개의 신도기업이란 단체에서 떠맡게 한다는 것은 사실 누가 보아도 무리이다. 국민 식생활의 근본적인 취향이 생닭으로 되어 있는 상황을 아무런 사전 준비 없이 무리하게 바꾼다는 것은 法の 취지인 소비자가격보호와 위생적인 도계육 공급의 뜻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나타내게 하는 것이다. 경제체제는 항상 민감하게 그 때의 실정에 맞게 변화 발전한다. 경제정책은 이러한 경제추이의 발전을 더욱 효과적으로 이끄는 선도적인 입장에서 그쳐야 한다. 많은 생산자와 수많은 소비자 사이에 도도히 흐르는 大河를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아래 몇 삽의 흙으로 막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달은 보지 못하고 손가락만 보는 격이 되어버릴 것이다.

● 肉鷄 유통대책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닭고기 유통체제는 언젠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양계인 스스로가 결정하고 실천해야 할 것이다. 다만 새로운 유통체제가 이루어질 때까지의 준비가 매우 중요하며 많은 기관이 필요할 뿐이다. 이제 소망스러운 새로운 체제로 향한 준비사항을 간략하게 몇 가지 정리해 보자.

1. 국민식생활 취향의 변경

당국에서 주도하든, 생산자단체에서 실시하든 국민들에게 냉동닭에 대한 도계과정, 냉장상태, 영양상태, 조리법, 가격형성과정 등에 대하여 각종 통로를 통하여 꾸준히 인식시킨다. 동시에 각 시장이나 적당한 판매처에 모델 쇼케이스(혹은 정육점, 슈퍼마켓 등에 모델 판매점 설치)를 설치하고 완전한 도계과정을

편치라인

거친 올바른 상품을 비영리목적으로 국민들에게 시판한다. 국민들이 실지로 도계닭을 구입하여 홍보활동에 의한 조리법으로 요리를 해 먹어 봄으로써 자연스럽게 닭고기에 대한 취향을 넓게 한다. 이러한 기간은 수년에 걸쳐 시행되면서 유통업자 스스로가 이익이 발생됨을 알고 도계닭 판매에 참여케 해야 한다. 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는 많은 비용이 필요하게 되는데 양계기금이 확보될 때까지는 양계업자 스스로의 찬조금과 정부의 보조금을 받아서 생산자단체인 협회에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2. 새로운 유통체제가 확립될 때까지는 현재의 생계판매경로와 도계장축 모두를 유통에 참여 케해야 한다. 단 시장에서 판매되는 생계처리시의 위생사항을 고려하여 깨끗한 철제 닭장을 비치케하고 자주 페인트칠을 하게하며 깃털이나 오물처리시설을 하게 한다. 완전한 위생시설을 하게한 뒤 이에 대한 확인을 수시로 실시하면 될 것이다.

3. 가장 중요한 사항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당혹을 느끼게 하지 않아야 하며 유통업자들도 시대에 호응하여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의 도계장 처리능력으로는 매우 부족하다. 도계장을 설치하므로써 기업으로서의 이윤이 보장될 때 더욱 증설이 가능할 것이다. 현재의 도계장축에서는 영양헨타나 호텔등의 유통요식업소에 그들의 시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의 경우만 하더라도 도계장을 거친다는 하나의 사실만은 동일하지만 그 유통경로는 매우 복잡하게 되어 있다. 농협과 같은 정부기관 이외의 유통참여자는 모두 이윤을 바라고 참여한다. 전체국민을 소비자로 상대하고 생산되는 수많은 양계산물의 유통경로가 몇 개소로 묶여지는 단순성을 띌 수는 없을 것이다.

● 양계인의 당면과제

이제 양계인은 생산위주에서 소비촉진위주의 방향으로 진로를 틀려야 한다. 각종 요리의 개발, 주부클럽을 이용한 요리 강습회, 매스콤을 통한 양계산물의 영양홍보, 세미나를 통한 인식주입등을 실시하므로써 아침시장 보러 나온 주부의 손이 쇠고기쪽 보다 선풍 닭고기를 집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가격의 등락에 대한 즉각적인 사실을 국민에게 알려주므로써 지금 2月末같이 갑자기 폭락된 닭고기가 소비자에게는 그대로 판매되므로써 소비위축을 가져왔던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한다.

소비자의 취향은 만들어지는 것이다. 대기업에서 그들의 상품을 구매케하기 위하여 과대선전하여 소비자 취향을 만드는 것은 일종의 유해한 조작극이다. 그러나 국민 체력증진과 두뇌개발에 기여하는 양계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한 광고나 홍보는 아무리 지나쳐도 국익에 벗어나는 일이 없다. 가능하면 국민들이 많은 소비를 할 수 있도록 해 줘야한다. 그러므로써 동시에 우리들의 양계산업도 점점 발전하는 것이다.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하여 우선 착수해야 할 일이 기금조성문제이다. 양계산업을 위한 기금은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야 한다. 사료 kg 당 36전의 기금을 지불케하면 年 약 2~3억원의 기금이 조성된다. 미국에서의 기금은 계란 15개 당 1원정도로 모으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계란이 年 약 30억개라면 같은 비율로 모을 때 약 2억원의 기금이 모여진다. 기금조성은 양계협회들 중심으로 양계인이 단결하여 이룩하여야 한다. 76年末에 있을 대한양계협회 총회에서 누가 회장으로 피선될지는 몰라도 차기 협회의 회장단은 양계산업의 유통에 가장 큰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며, 학계, 연구기관, 전문가로 이뤄진 유통 담당부가 설치되어야한다. 양계기금조성은 우리나라 양계사에서 분기점이 될 것이다.